

# 올 40만 가구 분양대전... 건설사 '브랜드 리뉴얼'로 승부

## 대우건설 '푸르지오'

새 브랜드 4대 프리미엄 상품군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주거 넘어 '라이프스타일' 제공

## 호반그룹 '호반써밋'

창립 30주년 주택브랜드 강화

## 롯데건설, 롯데캐슬+프리미엄 브랜드

이달 '최고급화' 새 브랜드 론칭

## 대림산업 'e편한세상'

고객니즈 반영 '차별화' 공간 설계

주요 건설사가 브랜드 고급화·주거 상품 차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40여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 대전이 펼쳐지는 데다, 수도권 알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을 앞두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브랜드 리뉴얼 건설사가 잇따르고 있다. 모



두 '고급화'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를 재 정비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푸르지오'를 선보였다. 브랜드 철학을 '본연이 지닌 고귀함'으로 정립하고 BI(Brand Identity) 컬러와 캐릭터를 모두 바꿨다. 브랜드 디자인부터 외경, 조경, 상품까지 전반적으로 혁신했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새로워진 푸르지오 브랜드에 맞춰 4대 프리미엄 상품군도 만들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며 "프리미엄 생활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5일 '힐스테이

트' 디자인과 콘셉트를 새롭게 정비했다. 브랜드 철학은 '탁월함'에서 '라이프스타일 리더'로 구체화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기존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쓰이는 로고를 한글 로고로 통일하고, 로고 글자크기도 키웠다. 주거 공간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세련된 삶, 다채로운 삶, 편안한 삶이라는 3가지 고객 제공 가치로 정의했다.

현대건설 측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브랜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도 지난달 13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택 브랜드를 강화했다. 2010

년부터 주상복합단지에만 사용하던 '호반써밋플레이스'를 '호반써밋'으로 리뉴얼하고, '베르디움' BI의 심볼마크를 고품격 주거공간, 프리미엄 공간을 상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롯데건설도 '롯데캐슬'과 별도로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이다. 롯데건설은 올 초 반포3주구 수주전에서 4월 새 브랜드 론칭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지난 1월 열린 반포3주구 시공사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건설 최광우 상무는 "작년부터 최고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마감재부터 시작해 설계 등을 최고급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리뉴얼에 이어 주거 상품을 새단장하는 건설사도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17일 'e편한세상' 신규 주거 상품을 공개한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반영해 스타일, 구조, 마감, 설계까지 차별화한 e편한세상만의 입체적 공간을 설계한다는 취

지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브랜드 및 주거 상품을 새롭게 단장하는 이유는 올해 분양 물량이 많고, 강남권 수주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2019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14~2018년 과거 5년 평균 분양실적(31만5602가구)에 비하면 약 23%(7만1139가구) 많은 수준이다. 신규 분양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건설사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가 최근 1년간 분양한 단지 395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기록한 곳은 48.6%(192개)에 그쳤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는 110개 단지 중 79개 단지(71.8%)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대형사 브랜드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유안타증권

#### 6~7일 좋은주식 찾기 강연

유안타증권은 '좋은 주식 찾기와 투자 타이밍'이란 주제로 '스마트 시스템 트레이딩 스쿨(32기)'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오는 6일부터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오목교역 8번 출구 제일빌딩 4층에 위치한 객장에서 진행된다.

강연회는 골드센터목동점 박준열 부장이 강사로 나서 6일에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분석' 및 '뉴스를 통한 투자아이디어 찾기'에 대해 진행하고 7일에는 '모직 및 수급분석을 통한 투자 타이밍 찾기'에 대해 강연한다. 무료로 선착순(20명) 참가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상품 기획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상품기획 및 개발사례 분석' 집합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금융투자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기획·개발, 마케팅 등 제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상품기획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펀드, 랩, 파생상품, 신탁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기획·개발업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시장의 트렌드·상품개발·마케팅 등의 실무지식 습득을 통해 현장에서 상품기획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34시간이다. 오는 2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김유진 기자

## 미래에셋대우, 온·오프 펀드 설정액 업계 1위 등극

2016년 3550억→작년 8071억 성장  
"성장속도 감안 연내 1조 돌파 무난"

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전용펀드 설정액이 87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오프라인 펀드 시장에 이어 온라인 펀드 시장에서도 증권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3550억원이던 미래에셋대우 온라인전용펀드 설정액은 2017년 5846억원, 2018년 8071억원으로 각각 65%, 3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설정액은 8773억원(4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약 8.7%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의 성장속도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1조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의 온라인전용펀드 성

장세는 연금펀드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축 온라인전용펀드의 설정액은 2830억원으로 2016년 말 579억원 대비 약 5배 가량 증가했으며 퇴직연금 온라인전용펀드 또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상품 라인업을 갖추기 시작해 현재 1970억원의 설정액을 보이고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온라인전용펀드 설정액을 합하면 총 4800억원으로 온라인전용펀드 총 잔고 8773억원의 절반이 넘는 55% 가량을 연금펀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비대면 자산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디지털고객기반 확대'와 '디지털 자산관리 상품,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전용펀드의 경우 장기투자 시 저렴한 수수료가 수익률에 상당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길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김남영 대표는 "과거 온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직접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등 자산관리를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미래에셋대우의 자산관리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고 편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며 "연금투자에 특화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추천 기능은 물론 다양한 연금 ETF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미래에셋생명, MVP펀드 1.3조 적립

출시 5년... 누적 수익률 23.5%

국내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의 원조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가 출시 5년 만에 순자산 1조3000억원을 적립했다.

2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일 출시된 MVP펀드는 3월 말 기준 순자산 1조3000억원, 누적 수익률 23.5%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MVP펀드는 지난해 5월 업계 최단기간 내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하반기 국내외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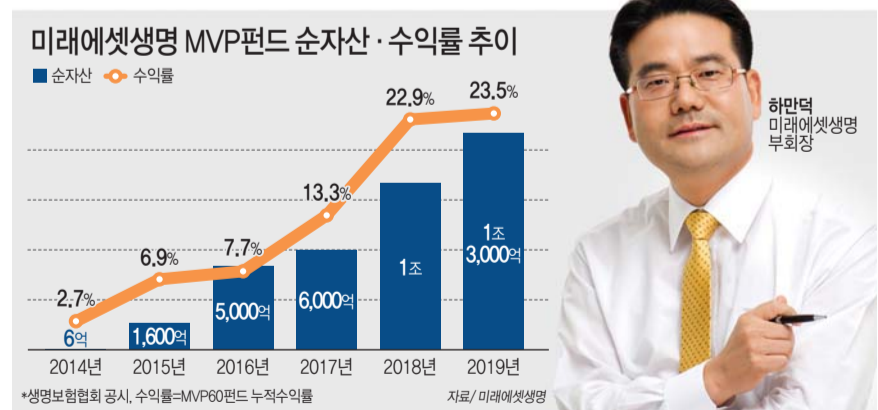
MVP펀드는 국내 최초의 일임형 자

산배분 펀드다. 계약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하며 변액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다.

MVP펀드는 장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기별 펀드 선택 비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자산운용을 이끈다.

특히 국내 주식, 채권 및 해외주식, 해외채권과 대안자산 등 총 13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MVP60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24%에 달하는 꾸준한 수익률로 초저금리 시대 최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MVP펀드 선전에 힘입어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1%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변액보험 5년 총자산 수익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또 안정된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약 53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30%의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

회장은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라며 "지난해 업계 장기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이 글로벌 우량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MVP펀드로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